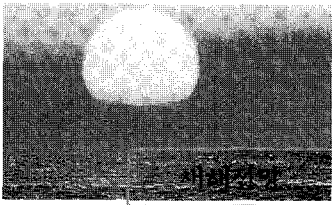


## 2002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2년 건설경기전망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소폭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투자는 1.5%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건설 계약실적은 연간 45억 달러 수준으로 2001년 예상실적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 I.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건설경기

### 1.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 (1) 세계경제

지난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 부진을 지속해 온 세계경제는 2001년 들어 부진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지난 9월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태로 인해 2001년에 2% 내외, 내년 2002년에는 3%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년 10월의 IMF 전망(미국 테러 사태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2.6% 성장에 그치고 내년 2002년에는 3.5% 내외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IMF는 미국 테러사태를 고려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1년과 2002년 모두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국별로 보면, 먼저 2000년 4.1%나 성장한 미국경제가 2001년에는 1.0% 이하의 성장에 그치고 2002년에도 2%를 상회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러의 직접 피해국인 미국이 IT산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경기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사태로 인해 그 동안 경기를 지탱해온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또는 2002년 초에 경기 회복이 기대되었던 미국경제는 하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경기회복도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테러사태 이후 발표된 주요 투자은행의 2001년도 미국경제 성장률은 1.0%, 2002년에는 더욱 낮은 0.5~0.8%로 2002년도 미국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1.5% 성장한 일본경제도 2001년에 오히려 경기침체로 연결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2년에도 0.5% 미만의 낮은 성장에 그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부부채비율, 제로수준의 금리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 앞으로 진행할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불황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경제도 2001년과 2002년 초까지 비교적 건설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 독일과 프랑스 경제를 중심으로 경기부진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2001년 중 1%대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2002년에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97년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당시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지탱한 것에 비해 이번 경기부진은 미국, 일본, 유럽이 동시에 불황을 나타내고 미국 테러사태가 경기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경기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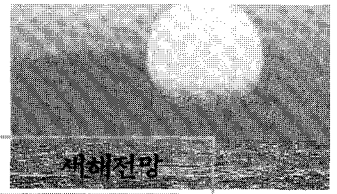
#### (2) 국내경제

##### 1) 동향

2001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국내경제는 2001년 들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0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한 국내경제는 2001년 1/4분기에는 3.7% 성장한데 이어 2/4분기에는 2.7% 성장에 그쳤다.

2/4분기 중 민간소비가 2.9%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가 10.8%나 크게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0.9%



증가에 그쳐 내수에 크게 위축된 가운데 2000년 4/4분기 중 18.9% 증가한 수출도 1/4분기 8.2% 증가, 2/4분기 중 0.2% 증가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2001년 하반기 들어서도 7월과 8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96.6, 96.2로 전월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하락하여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하강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강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통관 기준)의 경우는 세계경제의 악화로 2/4분기 중 전년 동기비 11.5% 감소한데 이어 3/4분기에는 19.2%나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4분기 중 4.7% 감소한 설비투자 추계(국민경제의 설비투자와는 다름)도 7월과 8월에는 각각 10.4%, 19.0%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분기 중 국내경기를 지탱해온 민간소비도 7월과 8월에 도소매 판매가 각각 전년 동월비 2.9%, 3.5% 증가하여 2/4분기의 4.4%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01년 하반기 들면서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 투자 및 소비 심리는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전망

당초 국내경제는 3/4분기 이후 경기 저점을 지나면서 서서히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경기회복이 2002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하반기 국내경제는 1%대의 성장에 그쳐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성장에 그쳤으며, 2002년에도 3~4%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먼저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IT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테러사태로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조만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심리나 민간소비심리가 조만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은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존 차원에서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투자를 축소하고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는 초긴축 경영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도 실업을 상승 등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소비를 늘리는 힘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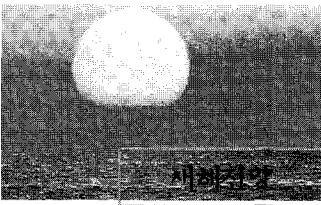
## 2. 국내경기와 건설경기

### (1) 국내경기와 건설수주

과거 우리나라의 실물경기와 건설수주의 순환 주기를 살펴보면 건설수주가 경기 저점에서 평균적으로 3분기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수주의 경기 선행선은 각 경기분환별, 건설공사의 공정별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말 이후 5차례에 걸친 경기순환기에서의 부문별 건설수주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먼저 토목 수주의 경우 1998년 3/4분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저점 또는 경기 저점을 지난 직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실



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8년의 경우는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토목 투자가 부진을 지속하였으며 경기 저점에서의 토목 수주 증가세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나 재정상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용 건축수주와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증가율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경기에 선행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경기에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국내경제가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기대되던 시점에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980년 및 1998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980년의 경우 경기하강국면에서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1998년은 경기하강국면에서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각각 경기가 불황을 나타내었다. 1980년과 1998년의 경우 주거용 건축수주와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경기 저점을 지난 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 (2) 국내경기와 건설투자

과거 우리나라의 실물경기와 건설투자의 순환 주기를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경기 저점에서 평균적으로 2분기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5차례에 걸친 경기순환기에서의 부문별 건설수주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먼저 토목 투자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경기와 동행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증가율의 진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과 1998년의 경우 주거용 건축투자와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경기 저점을 지난 후 약 1년 이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 3. 건설경기동향과전망

### (1) 건설수주 동향 및 전망

#### 1) 동향

2000년 17.6% 증가한 일반건설업체를 기준한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경상기준)은 2001년 1~8월 중 전년 동기비 5.9% 감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9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건설수주는 2001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비 20.7%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2.4% 증가하여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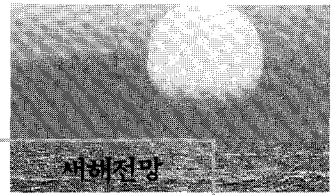
발주 부문별로 보면 먼저 공공공사 수주가 2001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비 22.2%나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12.6% 증가한데 이어 3/4분기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1~8월까지 공공공사 수주는 전년 동기비 0.3%에 그쳤다.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수주가 매우 낮은 증가에 그친 것은 1999년 이후의 완성공사 위주의 정부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1년도 공공공사 수주를 공종별로 보면, 공공 토목수주가 1/4분기 중 33.7%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15.6% 증가세로 반전되어 1~8월 전체로는 4.4%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공공 건축수주는 정부의 공공 주택건설 확대 정책에 따라 주거용 공공 건축수주가 1~8월 중 전년 동기비 23.3% 증가하고 학교와 관공서 등의 확충으로 비주거용 공공 건축수주도 9.7% 증가하였다.

2000년에 33.0% 증가하였던 민간공사 수주는 2001년 1~8월 중 전년 동기비 9.3% 감소하였다. 민간공사를 공종별로 보면 민간 토목수주가 4월과 5월의 대형민자사업의 계약으로 1~8월 중 23.6% 증가하였으나 민간건축수주는 민간 비주거용 건축



수주(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계약 통계를 사용함)에 따라 주거용 건축수주 중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설수주는 과소 집계되어 있음)의 27.7%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거용 건축수주가 27.1%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3.4% 감소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건설수주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0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하강으로 민간건설수주가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토목수주가 2/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체로 국내경기에 선행하는 민간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수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여타 건설부문에 비해 민간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지나치게 감소하여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비주거용 건축수주액의 절대 규모로 보면 1999년 이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8월 간 10조 5,300억원에 그쳐 1997년 같은 기간의 59%에 그쳤다. 이는 다른 건설부문에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건설수주의 회복도 74%에 비해 15% 포인트 낮다.

## 2) 전망

당초 건설수주는 그 동안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민간 주거용 건축수주의 회복에 힘입어 200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으로 건설수주의 회복이 지연되어 하반기에 0.8%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02년도에는 1.3% 내외의 소폭 증가에 그쳐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상반기 중 건설수주는 3.2% 내외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5.5% 내외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2002년 상반기까지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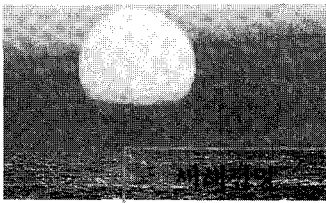
정부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등 5조원 규모의 신규공사를 연내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는 등 2002년에 실시될 건설사업을 연내에 조기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SOC 예산안을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나 2002년도 SOC 예산안 증액 논의의 흐름으로 고려해볼 때 SOC 투자확대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공 토목 이외에도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공 주거용 건축수주도 하반기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의 건설수주 확대와는 달리 민간건설수주는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민간 주거용 건축수주는 2002년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중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후 2002년 상반기에는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한편 공종별로 보면, 토목수주가 금년 하반기 중 0.3%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02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6.2% 증가하고 건축수주는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에 각각 1.1%,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규모 군사보복이 이루어지고 중동지역의 정치적인 혼란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세계 및 국내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건축부문 부진이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 (2) 건설투자 동향 및 전망

### 1) 동향

지난 3년간 감소세를 지속하여 온 건설투자(1995년 불변가격기준)는 2001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비 1.4%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0.9% 증가하여 증가폭이 낮아져 상반기 전체로는 1.1% 증가에 그쳤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2000년 5.8% 감소한 토목투자의 경우 2001년 1/4분기와 2/4분기 중에 각각 12%, 2.6% 감소하여 감소폭은 비록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정부의 SOC 투자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2001년 SOC 투자예산규모는 2000년에 비해 3.9%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정체되었다.

건축투자는 2001년 1/4분기 중 3.4% 증가한데 이어 2/4분기에는 5.4% 증가하여 증가세가 높아졌다. 1/4분기 중 1.6% 증가한 주거용 건축투자가 2/4분기에는 6.5%로 증가세가 높아진 반면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4분기 중 3.8% 증가해 1/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낮아졌다.

### 2) 전망

향후 건설투자는 2001년 하반기 중 1.2% 증가하고, 2002년에도 1.5%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는 2001년 상반기에는 건축투자에 비해 토목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에는 국내경기 부진으로 토목투자에 비해 건축투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토목투자의 경우 2001년 상반기 중 2.1%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1.0%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되고 2002년 상반기에는 3.2% 증가하여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상반기 중 4.4% 내외 증가한 건축투자의 경우 하반기에는 1.5% 내외로 증가세가 둔화된 후 2002년 상반기에는 1.8%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II. 해외건설

### 1. 동향

2001년 9월 말 현재 해외건설 계약실적은 27억 4,019만 달러로 200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7% 감소하였다.

정부는 연초 80억 달러에서 6월에 47억 달러로 연간 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마저 불투명하며, 올해의 총 계약실적은 1997년의 1/3분기 수준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연간 실적이 1997년의 38.7% 수준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2001년의 추가적인 침체 현상은 해외건설의 심각한 부진을 반영한다.

상반기 중 51.5%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 처리의 시차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하반기에도 침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6월말에 수주한 8억 200만 달러 규모의 담수발전 공사계약



이 실제로는 3/4분기에 포함됨)중동지역에 대한 진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시장의 53.9%를 차지한 14억 7,578만 달러에 이른 반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9억 6,829만 달러에 그쳐 2000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3%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시장의 비중은 1996년 70.3%에서 35.3%로 하락하였으며 1996~2000년 사이 평균 비중 5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대우건설이 8월초 나이지리아에서 2억 3,783만 달러 규모의 가스처리 플랜트 시설공사를 신규 계약함으로써 실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아랍에미리트 시장 진출 실적이 8억 2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 시장이 총 9건에 3억 2,301만 달러를 기록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인도 시장의 경우 1996년 중 19억 2,695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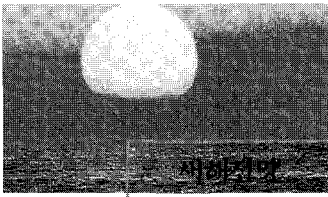
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대한 진출 실적은 현재 2,623만 달러에 불과하여 2000년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0년 3/4분기까지에 비해 토목부문의 계약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건축부문과 플랜트부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부문의 실적이 4억 8,822만 달러에 불과하여 79.9%가 감소하였으나 건축부문은 223.0%, 플랜트부문은 99.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건축부문의 계약실적 5억 6,762만 달러는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12.5% 수준에 불과하며, 일정한 추세라기보다는 정세적인 변동에 의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플랜트부문의 비중이 59.2%를 차지한 것은 중동 지역에서 플랜트부문의 발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토목과 건축부문의 비중 축소에



다른 반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 비중을 1996~2000년 사이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9월말 현재 59.2%를 차지한 플랜트부문 계약실적은 17.1%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은 각각 12.6% 포인트와 4.0% 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의 심각한 침체현상은 2001년 4/4분기에도 이어졌다.

수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말에 발주될 예정인 멕시코의 15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에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결국 2001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5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 2. 구조적인 문제점

해외건설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계약실적이 저조한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부진, 시공사 금융을 요구하는 현지 발주방식의 변화, 개발도상국의 현지화 정책 강화, 국내 보증 및 보험과 관련된 해외건설 금융지원정책의 미흡 등 해외건설 침체의 주요 원인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해외건설 활동 자체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중 해외건설 사업의 수익률은 1996년의 2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해외건설공사 가운데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준공 공사를 기준으로 조사(2001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자료)한 바에 따르면 1996년에는 9건의 공사에서 수익률이 4.37%였으나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20건과 14건의 공사에 대한 수익률이 0.97%와 0.9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공사의 수익률 하락 추세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견적 능력 부족과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분석 능력 부족, 핵심경쟁상품의 부재, 수익성 창출적인 생산구조의 미비 등 해외건설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건설업에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이 누적되어 기업 채산성 악화 구조를 야기 시키고 있다.

2001년 6월말 현재 미수금 총액은 18억 600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995~2000년 사이 연평균 계약금액 86억 6,500만 달러의 20.8%(2001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자료)에 해당된다.

2000년 10월말 기준 21억 9,500만 달러에 비하면 17.7%가 감소하였으나 미수금 누적 금액을 1995~200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배분하면 연평균 계약금액의 3.5% 수준에 달한다.

주요 진출시장인 중동 지역에서 15억 5,500만 달러가 발생하여 전체의 86%를 차지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도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총액이 전체의 81%를 차지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집중된 양상을 나타내며 대부분이 악성 미수금으로 파악되지만 국내 기업 30개 사가 전체 36개 국가 대상으로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해외건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00년 10월 이후 5년 미만 미수금은 3억 3,500만 달러(총액의 15%) 감소한 반면 5년 이상 장기 미





수금은 5,400만 달러(총액의 2%)가 감소한 수준에 그쳐 미수금 변동구조가 악화되었음을 반영한다.

미수금 발생의 원인으로 발주국의 경제 여건이 악화된 측면과 국내 시공업체의 공기지연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정산이 지연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국내 시공업체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미수금 조기 해결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보다 적극적인 건설 외교를 통하여 장기 미수금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규 발주공사를 통해 보전을 받거나 대물변제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분쟁해결수단을 동원하는 이원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기지연과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현지 여건 변화의 영향력을 흡수시킬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 3. 전망

2002년 해외건설 계약실적은 연간 45억 달러 수준으로 2001년 예상실적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국제통화기금은 2001년 9월말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2002년 경제성장률을 2000년 5.0%와 2001년 4.7%보다 낮은 4.6%로 전망했으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을 2000년 5.0%보다 낮은 4.5%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테러사건 이후 중동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신규 발주 일정의 지연 또는 발주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 신인도가 회복되었고 국내 기업들의 신인도

가 향상되고 있으므로 2002년에는 수주 여건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대, 동아, 신화건설 등 주요 해외진출업체들의 신인도가 추락한 이후 해외건설 활성화를 주도해 나아갈 만한 선도적 기업의 부재로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인지도 회복이 어렵다.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실적은 20~25억 달러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상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는 우선 순위가 높은 담수 발전, 천연가스 개발, 석유화학 설비 확충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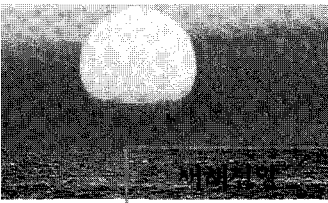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만 주위의 주요 발주국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공사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어 금융조달 역량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5개국이 2000년도에 발주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공사 물량은 42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2년도에는 150억 달러 규모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15~2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상승세가 긍정적인 추세로 보이거나 동남아 국가들의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건설경기가 63%나 위축된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2년 중 토목, 상업 및 산업용 빌딩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것이나 국내 기업의 수주 기회가 이에 비례해 확대되기는 어렵다. 중국이 서부 대개발 사업과 220억 달러에 이르는 북경 올림픽 준비사업을 본격화시킴에 따라 건설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지만 시공 중심의 토목 및 건



축공사에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에 대해 경쟁력이 없으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종별로는 해외시장에서 건축부문과 플랜트부문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수주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플랜트 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에서 발전, 석유화학, 가스개발설비 등을 중심으로 플랜트공사의 발주물량이 2002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일반 산업설비공사의 신규 발주 또는 개발공사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므로 공사수주 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플랜트부문에서도 소규모 공사와 하도급 참여 공사 수주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주국의 현지와 정책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반 토목공종에서 큰 폭의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주도해왔던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의 공백이 200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Ⅲ. 건설 인력 및 임금

#### 1. 건설 인력 고용 동향 및 전망

##### (1) 동향

IMF 이후 건설투자의 감소와 더불어 급감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99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00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1년 들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0만

6,000명으로 2000년 동월 162만 3,000명에 비해 1% 감소하였다. 이는 전면에 비해 건설투자는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위 금액당 고용유발효과가 큰 토목투자의 비중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듯하다.

1997년 8월의 취업자 수 대비 2001년 8월의 취업자 수 회복도는 전 산업평균이 101.0%인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약 77.4% 수준에 그쳤다.

한편 1998년 전 산업 1년 미만 실업자의 25% 차지했던 건설업의 실업자 비중은 최근에 크게 감소하여 2001년 8월에는 15.7%로 줄었으나 건설업의 취업자 비중 7.5%에 비하면 약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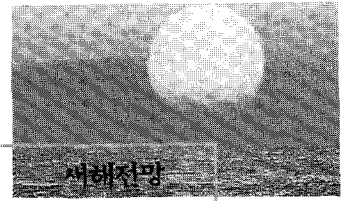
지역조사를 통해 전년도 10월과 2001년 9월의 노동력 수급상황을 비교해보면 조사된 12개 직종 모두에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조사자료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47.6세인데 방수공, 조적공, 건축목공 등의 연령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현재 직종별 인력 과부족 상태를 비교하면 모든 직종에서의 부족 상태에 바뀌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직종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미장공, 비계공 등이다.

##### (2) 전망

2001년 상반기에 월 평균 157만 5,000명에 그쳤던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2년에는 토목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01년에 비해 2.4% 증가한 연간 161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능인력 투입인원 수의 증가폭은 더욱 커 2001년에 비해 3.1% 증가한 월 평균 11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직종별로는 형틀목공, 조적공, 미장공, 건축목공 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확보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임금의 동향 및 전망

### (1) 동향

지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 9월 현재 건설근로자들은 숙련 노동력의 초과 수요상황에서 주요 직종의 임금이 2000년 10월 대비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12개의 주요 직종은 전체 건설기능인력의 75~8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및 임금 변동을 가늠할 수 있다. 2001년 9월 현재 조사된 지역 및 직종의 평균 임금(일당)은 8만 6,323원이었으며, 주요 직종 중 건축목공, 비계공, 형틀목공, 도장공, 타일공 등이 고임금 직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환 위기 이전에 비해 건설물량은 적으나 임금은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건설투자가 약 87조원이었던 1996년에 비해 2001년의 건설투자는 약 70조원에 이르러 회복도는 약 80%에 그쳤으나 조사된 주요 직종의 임금은 이미 116%에 달하고 있다.

### (2) 전망

2002년에는 숙련공 부족의 심화가 약간의 건설투자 증대와 맞물리면서 공기 차질과 가파른 임금 상승의 이중고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직종의 경우 2001년 임금수준에 비해 8.3% 상승한 8시간 기준 평균 6만 5,000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당 약 8만 9,000원 수준이다. 인력 수급과 임금 추이를 종합해볼 때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공, 미장공, 비계공 등의 임금 인상이 비교적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에는 원활한 숙련공 확보 및 임금 안전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의 한 축은 단기적 대응책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문제와 관련해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으로서 국내 건설기능인력의 노동력 플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그 기

본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능

인력의 자격증에 대한 유인 확충,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 실시, 건설관련 공고생에 대한 실질적 기능교육강화 등이다.

